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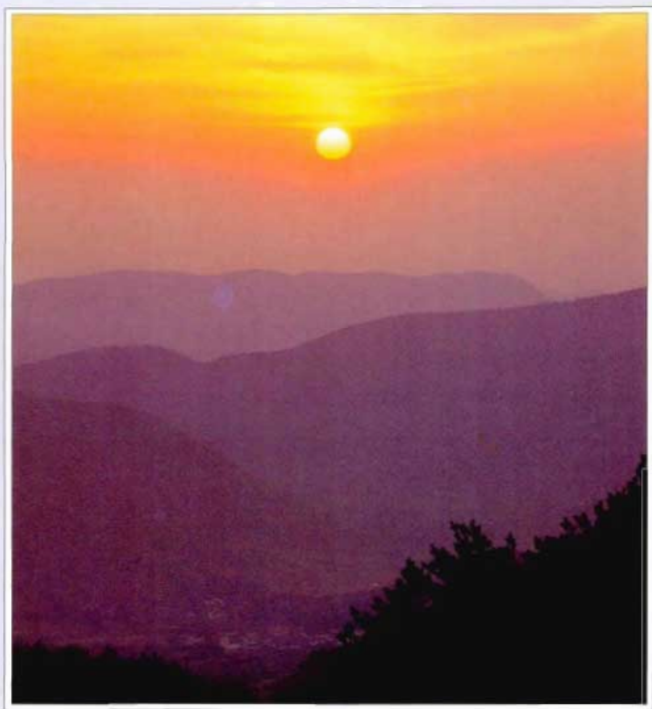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1999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누가복음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1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누가복음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9. 새롭게 허락하신 1999년 한 해 동안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소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깊은 감사와 감회 속에서 성도님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뜻대로 빛으시고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지독한 개인주의,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무의식적 교만이 가득했던 1900년대가 이제 마지막 1년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세기의 세월은 급격한 '영적 쇠퇴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이 와중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불순종은 더욱 드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끝날이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두 손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지극히 합당한 여건까지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충현의 온 성도들이 이 중요한 시점에, 복음의 대열에 함께 서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1900년대의 마지막 해를 '영적 부흥기'로 기록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1999년 1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9년 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누가복음 서문

본서는 헬라인 의사이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의원으로서(골 4:14) 마지막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던 동역자(딤후 4:11)였습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본서의 서론(1:1-4)과 사도행전의 내용(행 9:20, 21)에서 볼 때 1)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오빌로를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신앙 위에 세우려는 것과 2) 많은 지성적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며 3) 빈곤한 자나 과부나 소외 당하는 많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등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1:26-33), 또한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잘 묘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울 재림에 관하여 또한 만민에게 열려 있는 복음의 개방성에 대해서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하고 있어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부각시킵니다(2:10, 24:52). 문학적으로는 당시 세계 통용어이던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적 용어도 헬라적 용어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습니다(7:30, 10:25).

누가는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책이 아니라 두 편으로 된 한 권

의 책이었는데, 1세기 말에 두 권으로 나누어서 배포하게 됨에 따라 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동일하게 데오빌로입니다. 따라서 두 책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태동과 성장을,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전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모두가 성령의 사역과 기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는 성령과 기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내용 흐름

- 1) 1:1-4:13 인자에 대한 소개 :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시절
- 2) 4:14-9:50 인자의 갈릴리 사역 : 예수님의 권능과 교훈
- 3) 9:51-19:27 인자의 배척 : 종교지도자(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의 대립
- 4) 19:28-24:53 인자의 수난과 부활 : 부활로서 인간들 앞에서 증거 되신 예수님

1

(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언

찬송 / 112장 본문 / 눅 1:1-38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시각으로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때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반해서 누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타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유년시절(2:40), 예루살렘 방문 및 나사렛에서의 생활(2:41-52)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상세하게 수록한 것은 구속사의 흐름을 통해서 나타난 '예언과 성취'라는 큰 주제를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왔고 그 예언들은 본문 1장 57-66절과 2장 1-20절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일점일획이라도 어김 없이 모두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삶에도 계속 확인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오늘 내 앞에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39-56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57-80절) 등의 내용으로 4복음서 가운데서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사가라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가 복된 여인임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57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말라기 4장 5-6절 등에 기록된 구약 예언의 성취요, 가깝게는 13-17절에 기록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위 '침묵의시대' 였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속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 아버지 사가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메시아왕국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 왕국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74절) 성결과 의로 주를 섬기는 곳(75절)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일찌기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회복된 낙원과도 같은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언된 말씀의 일점일획이라도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가장 진실된 현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3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찬송 / 122장 본문 / 눅 2:1-20

가 이사가 온 백성들에게 호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고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천사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부터 예언된 메시아(창 3:15), 인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 메시아(롬 8:8:2)께서 탄생하신 것 자체가 실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는 예수를 '구주'요 '그리스도' 시라고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목자는 일반적으로 천시되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주의 복음이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이신 사실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7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자체가 엄청난 자기 비하와 겸손의 모습이신데 더구나 사람의 집이 아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것은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초라한 동네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지고 가신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낮아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요셉 부부의 예루살렘 여행(2:21-40)과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2:41-52)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례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써 무죄,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친히 율법 아래 나셨음을 의미합니다(갈 4:4-5).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는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뿐만 아니라 탄생부터의 모든 삶을 희생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요셉 부부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게 되었고,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예수님이 만백성의 주시며, 구세주 되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있었고 수많은 레위인들이 모여서 각종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각종 종교행위를 거행하는 그 자체가 메시아를 기다림에 대한 그들의 소원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긴 했어도 실상 메시아가 그들 곁에 오셨을 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와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고 계시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처한다면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것 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5

(화)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

찬송 / 442장 본문 / 눅 3:1-38

본 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16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 자신이 신들메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16절)으로 묘사합니다. 아울러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더불어 대속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타락한 인간의 자리로 친히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 노아,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와 관련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아가 첫 사람 아담으로 온 땅에 저주가 임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 주고자 한 것입니다(롬 5:12-21).

예수님의 이 족보를 바르게 대할 때 우리 이웃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한 형제일 수 있는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봅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 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메시아 되심을 공적으로 인정받으셨다면, 사단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메시아 사역의 완성을 예고합니다. 첫 아담 및 이스라엘 불순종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고난 없이 영광을 주려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 40일 광야 생활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와같이 성령님은 종종 우리들을 시험받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즈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을 골라 시험했습니다. 지쳐 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등은 사단이 시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시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뢰를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헌금으로 하나님의 복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유를 지나치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시험에서의 승리를 위한 가장 예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늘 깨어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죄와 사단의 포로된 백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이미 믿고 있는 그들에게 성취된 복음을 들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있습니까? 성경 묵상 시간을 가족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해’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 즉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와 용서와 안식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율법의 멍에에 눌려 있습니까? 죄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번민합니까? 그리스도의 초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고향 사람의 배척을 받은 예수님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배척하는 자에게는 강박한 마음만 남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복음밖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순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주님의 깨우치시는 은총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유자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과는 상충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자기 경험이라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순종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심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배우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의 배움과 더불어 예수님을 체험하면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결과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의 죄와 부족을 고백하는 자기 부정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무능을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느낌 속에서 주님의 충만을 맛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 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인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천국은 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은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직업상 멸시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옛생활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섞여서 교제의 잔치를 가지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 소년 소녀 가장, 전과자, 매춘부, 극빈자, 또 마음이 병든 자들, 고통 하는 자들 모두가 우리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혹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새 옷이요, 새 포도주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의 낡은 틀로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형식은 과감하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개혁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을 생각하며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변화,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개혁할 것을 과감하게 개혁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문이 '안식일'과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 주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 왕의 왕권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문자적 안식일 준수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수주일을 생각하십니까? 주일 중 하루를 쉬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니까?

예수님은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는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요즘하고 있는 생각도 아십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참 안식을 주는 것임을 가르치시고 이어 그 가르침을 적용하심으로 참 안식의 의미를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안식일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안식입니다.

참 안식은 무작정 쉬기보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죄에 매이지 않고 참 안식을 얻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울며 주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며 울며 주리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난하고 울며 주리기보다는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살다가 돌아가는 이 세상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외롭게 되며 배척을 받으며 때로는 궁핍하게 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알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슬퍼하며 핍박받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있는 자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므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하고도 진실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장 놀라운 믿음이라는 칭찬을 하게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은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주위의 유대인들도 평상시에 유대 민족을 사랑하던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실 것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하고 진실하였습니다. 자신이 군인이기에 예수님은 말씀 한 마디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감히 모실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걷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할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말함으로 자신이 구약 시대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위대한 종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큰 자가 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의 종교지도자들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봅시다. 참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허락된 귀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써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 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으로부터 놓임받은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주님을 섬기고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외인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진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며 불신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인한 축복에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씨를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와 경험으로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겉으로는 변화된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 자기 생각으로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받아 힘을 빼앗겨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듣고 인내하면서 결실할 때까지 참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은 같지만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열매는 크게 달라집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가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 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인을 만나 그 안에서 역사하는 군대 귀신에게 명령하여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병들었을 때에도 그의 간절한 청을 들어 그 아이를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그 길에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은 그 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혈루병에서 놓임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로 말미암아 딸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성난 파도 앞에서 무기력한 제자들, 군대 귀신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눌린 거라사 광인, 혈루병이라는 운명 앞에 고통받는 여인, 사랑하는 외동딸을 죽음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야이로의 고통 등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최고의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이 모든 불가능과 무질서를 바로 잡고 본래의 자리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인간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께서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로 믿고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부활에 대한 감격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헌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 어떤 헌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오 늘의 본문에는 몇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졸다가 잠이 깬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아직도 인간의 일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두번째는 귀신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귀신들린 자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악한 영의 권세에 꼼짝못하는 능력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세번째는 “누가 크냐” 하는 변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고 작은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을 모르고 참된 섬김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네번째는 사마리아의 한 촌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사건입니다.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분노하는 제자들의 미성숙한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좇으라”는 말씀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지적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 수님께서는 칠십인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처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우선 이들이 가는 세상의 환경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들을 멸망시키려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4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 되 영접하면 거기서 지내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즉시 떠나라고 말하십니다.

전도 여행을 끝낸 후 제자들은 귀신들을 이긴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20절).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기쁨보다 다른 곳에서 성도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21, 22절).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게 된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이들이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 이유는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민 9:7).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했으며, 이웃을 결코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라는 구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오직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참된 긍휼의 유무에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말과 의식으로만 이웃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마음으로 우러난 참된 긍휼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떤 법과 형식으로 지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돌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 사랑이 아니라 중심의 사랑을 보십니다.

-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도 있어서도 모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어 속에는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하루하루 먹여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에서도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철저한 의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때를 쓰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를 쓰는 듯한 내용의 기도는 사실 13절을 통해서 여과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도록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때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을 향해 물려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등 교권주의자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오던 수많은 고정팬(?)들을 예수님에게 빼앗겨 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몰아 세웠습니다(15절). 결국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수하에 있는 한낱 보잘것없는 술사로 깎아 내리려는 고단위의 술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원리를 가지고 저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17-19절).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병어리 귀신에게 행한 이 일이 인간의 일도, 귀신의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혀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십니다(20-28절).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양자를 넘나들면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선된 행위에서 나오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탕발림으로 가르치는 그들의 교훈 속에 거짓된 외식이 숨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선생들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세밀히 달아 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태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시종 일관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यो”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로써 자신을 거역하는 것까지는 사하심을 입을 수 있다고 양보를 하셨습니다(9절). 그러나 성령을 훼방하고서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 것을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11, 12절).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사 람들마다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궁극적 관심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부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20절). 우리들은 어떤 것을 우리의 궁극적 관심으로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부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이것에 대한 궁극적 대답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새가 먹을 것을 준비 하지 않아도(24절), 또 들의 백합화가 입을 것을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27절), 먹이시고 입히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28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관심이 가장 정확한 관심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정의하십니다.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영똥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문외한이고, 무관심하다고 질타하십니다(34-57절). 우리는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잠들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나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바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롬 3:23). 죄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만약 이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3절).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뿐입니다(5절).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간을 연장해 주시되 마치 하루가 천년같이 또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자를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내버려 두십니다(벧후 2:9, 10). 우리는 우리의 열매맺지 못함에 관해서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억눌러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논쟁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나무와도 같고 부풀어지는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할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 기도 제목 / ①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을 내게로 돌리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신적인 사역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엡 2:8).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을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 7:21, 요 8:31-47).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구원얻을 사람이 얼마나 적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23절).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24절)이며,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을 당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요 3:16, 6:39).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버렸습니다. (3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향해 애통해 하시며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겔 33:11). 우리는 주님께서 힘써 열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왕되신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1 6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안식일 식사에 초대되어 거기서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고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합당하나 그렇지 아니하냐는 질문을 던지십니다(3절).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 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그들 종교의 권위와 주체성의 근거를 찾으려 했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하였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정신에 대하여는 외면하였습니 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왜곡된 율법의 의미를 바로 드러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과 충돌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굳이 다른 날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사역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7-14절에서는 식사에 초대된 자들이 서로 상좌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고 잔치에 초대받은 자와 초대한 자의 잘못된 행위와 동기를 비유를 통해 지적하심으로써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래 잔치의 상좌인 주인의 옆자리는 존경받는 자나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앉으려 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의 교만을 여러 번에 걸쳐 깨우치시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사랑과 겸손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이 점점 가까워오자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26, 27절)과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신 내용입니다(28-35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자의 자세를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28-30절). 이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춘 다음에 망대 건축을 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인식하고 예수님을 좇음으로써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로(31, 32절), 이 비유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의 준비성과 계획성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로 이 비유는 제자가 되려는 자의 헌신과 희생을 교훈해 줍니다. 짠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아무 가치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제자 역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훈련을 쌓아야 하고, 세상적 가치관과 태도, 돈, 명예, 이기적 사랑을 하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도록 인내하는 모습이 요구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할 때 제자가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② 복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사귀는 것에 대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자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비유로써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3-7절), 잃은 드라크마를 위해 불을 밝히고 찾는 비유(8-10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조건없이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이는 탕자의 비유(11-3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비유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 비유에 있어서 잃어버린 바 된 것이 가치가 점점 더 상승되고 있는데(양 → 드라크마 → 아들) 이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가를 강조해 줍니다. 둘째, 여기서 양은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자신의 사악함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도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시며 기뻐게 맞아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갇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시금 그분께로 인도하는 수고를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같은 우리의 수고는 곧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잃은 양을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보 문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낭비가 심했던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고 최대한의 수완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즉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의 문서를 고쳐 쓰게 하여 그 빚을 반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주인의 재산을 남용한 불의한 청지기의 부도덕성, 악한 방법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도 그들의 존재 근거인 영원한 거주지, 즉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의 목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장래를 도모했듯이 빛의 자녀인 성도들 역시 세상 재물을 일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장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선용하도록 교훈하시고자 이 비유를 도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빛의 자녀들도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바른 신앙 생활로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산을 올바르게 선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꾀하였지만 빛의 자녀들은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 장래를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최우선을 두고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지혜롭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예수님께서 베뢰아 사역을 마치고 다시 유대지방에서 사역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수평적 관계인 이웃과의 삶에서,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삶에서 가져야 할 덕목들과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교훈은 모두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형제를 실족케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1, 2절). 예수님께서 는 그가 떠난 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누가는 그 예언의 성취를 초대 교회 상황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맡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경계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라는 교훈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고 권고하십니다(5, 6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이 너무 높은 차원이기에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말함으로 믿음의 양을 요구했으나 예수님께서 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심으로써 믿음의 진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즉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째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헌신의 당위성에 대한 교훈입니다(7-10절). 주인을 충성되게 섬기는 종은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마땅히 행합니다.

제자는 주님 제일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갖추도록 하소서. ② 힘겹게 겨울을 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하게 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때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비로소 이 땅과 하늘이 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만물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때와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재림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교훈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는 것(22, 25절)과 종말의 때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23절), 그리고 주의 재림은 번개가 비취같이 매우 갑작스럽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24절). 두번째는 재림 전에 있게 될 세상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교훈으로(26-30절),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종말의 때에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에 빠져 홀연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31-37절),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구분될 것이므로 성도들은 예기치 않은 주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되, 세상 것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31-33절).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깨어 근신하게 하소서. ② 1월에도 은총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2월에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어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서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복음서들이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비유보다는 생명과 빛, 예수님과 성부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긴 강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AD 70년 이전)는 예수님에 대한 '가현설'(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지 환상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주장하는 이단이 이미 나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1:14)라고 명백하게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분을 일으키시고(2:15), 피곤해 하시며(4:6), 슬픔에 싸여 깊은 동정심을 품으시는(11:33-38) 등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적 이야기 후에 반드시 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이 덧붙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은유적 선언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6:35), '나는 세상의 빛'(8:12), '나는 양의 문'(10:7), '나는 선한 목자'(10:11), '나는 부활이요 생명'(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14:6), '나는 참 포도나무'(15:1) 등.

요한복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내 자신의 삶의 본분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주요내용

1.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1:1-18)
2.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1:19-4:54)
 - : 세례요한의 증거, 제자들의 증거
 -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에 차례로 나타나심
3.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하나님의 아들(5:1-12:50)
 - : 예루살렘과 갈릴리, 베다니 등에서 거부당하심
4.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13:1-17:26)
 - : 다락방 및 동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준비시키심
5.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18:1-21:25)

제 1 과

요한복음(1) 잔치와 변화

찬 송 / 210장
읽을 말씀 / 1-4장
공부할 말씀 / 2:1-11

먼저 읽기

오늘은 새해의 첫 날이자 첫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첫 구역예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요구되는 날입니다. 1999년 1월 1일. 숫자상으로도 무엇인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1900대의 마지막 해를 맞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설'에는 '잔치'가 따릅니다. 풍성한 음식과 한없이 즐거운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이러한 기쁨이 많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즐거움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1세기초 갈릴리 가나 같은 외진 마을에서도 '혼인잔치'는 대단한 중대사였습니다. 길면 일주일씩 계속되는 이 잔치에는 온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때 포도주가 모자라면 신랑가정은 크게 당황하기 마련이었고,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법적인 소송대신 기대할 수 없었던

기쁨이 잔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혼인잔치가 있던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지 몇일째 되던 날 인가요?(1절)
2.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4절)
3. 이후로 예수님은 포도주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7-8절)
4.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11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말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 그

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매일 성숙을 향한 변화를 요청받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쁜 습관 버리기, 좋은 습관 살리기 등 생활의 규칙들 몇 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하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은 '나를 좌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변화란 예수님을 좌우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더불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첫날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본문의 기적은 '사람들의 잔치' 의 한 가운데 오셔서 잔치의 진정한 풍성을 가르치심으로, '아무도 채워 줄 수 없는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한 분 예수님과 그 영광' 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주님은 총 안에서 당신이 기대하는 바 가장 큰 이적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아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제 2 과

요한복음(2)

예수님의 선택

찬 송 / 431장

읽을 말씀 / 5-8장

공부할 말씀 / 7:1-13

먼저 읽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로서 가장 즐거운 분위기에서 시월 초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30킬로미터 이내에 사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에는 한 해의 추수를 잘 마친 것에 대한 감사와 먼 옛날 조상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보살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8일 동안 거리나 옥상에서 짚으로 만든 오두막을 짓고 지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즐겁고 감사한 절기에, 이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살해의 위협과 가족들의 불신 등에 휩싸여서 은밀히 다니셔야 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예수님께서서 유대로 가지지 않으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2.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동생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권했습니까?(3절)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4절)
3. 그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무례하게 요구하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5절)
4.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내용, 곧 '유명해지려면 사람

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은 우리들 일상의 논리입니다. 거창하고 큰 행사가 벌어지고 유명세를 타는 인사들이 집결하는 모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관심이 크게 쏠리지만, 그렇지 않은 조촐한 모임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자신을 달래야만 겨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도 우리들은 나를 알아 주는 모임을 선호합니다.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섬겨야 할 '작은 모임'은 무엇입니까?

2.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치 번덕을 좀 부리신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자주 소개합니다(2:4 / 7:6, 8, 30 / 8:20 / 12:23 / 13:1 / 16:32 / 17:1 등).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를 물으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만큼 너무 조급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때가 다 지나가도록 너무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제 3 과

요한복음(3)

믿음이란

찬 송 / 340장
읽을 말씀 / 9-12장
공부할 말씀 / 9:18-34

먼저 읽기

구약성경에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사건' 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된 적은 있습니다(사 35:5).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눅 4:18). 예수님은 비진리와 배교의 어둠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밝음을 주시는 '빛' 으로 오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역의 의미를 실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 소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소경 된 것은 당시 사람들의 편견(누군가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는)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은 자신에게 발생한 가슴 벅찬 변화로 인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를 가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그를 떼어놓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의 부모까지 소환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누구 한 사람이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2. 소경을 심문하는 유대인들은 소경이 보게 된 사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18절)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24절)
3. 소경 아들 대신 심문에 출두한 부모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20-21절)
4. 그 부모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22절)
5. 소경이 가진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25절, 30-33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다' 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믿음대로 내리는 '행동의 결단' 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소경의 부모를 보면,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적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현실적인 두려움' 으로 인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주 주저하는 상황은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2. 소경은 자신에게 일어난 '명백한 변화' 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 사실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매우 차분히 추론해 갔습니다. 어쩌면 그가 평생을 소경으로 지내온 힘겨운 과거가 그로 하여금 아무것에도 겁내지 않도록 만들어 준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곧 가장 영광스런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열악한 환경이나 힘겨운 상황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위한 가장 좋은 배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제 4 과

요한복음(4)

처소를 위하여

찬 송 / 432장
읽을 말씀 / 13-16장
공부할 말씀 / 14:1-7

먼저 읽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시자 제자들의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게 될 뿐 아니라,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담(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는 더욱 기가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듣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도,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매우 모호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마치 버림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고아들처럼 망연자실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는 듣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동사'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1절)
2.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2절)
3. 제자들을 장차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3절)
4.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믿으라'는 말씀은 매우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근심이 사

라집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기만 하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길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어떤 근심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2.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처소는 문법적으로 '한 처소'입니다. 따라서 그 처소는 임시적인 어떤 거처가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할 최종적이고 완전한 처소를 말합니다. 이 약속은 불편하고 불안한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큰 위로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상황처럼, 요즈음 '깊은 소외감, 혹은 홀로 남겨진다는 슬픔'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불편하고 불안한 거주지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격려받으실 수 있을까요?

제 5 과

요한복음(5)

나의 길 그의 길

찬 송 / 513장

읽을 말씀 / 17-21장

공부할 말씀 / 21:18-23

먼저 읽기

요한복음 21장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매우 인상적인 '아름다운 그림엽서' 처럼 남아 있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움과 긴장, 회복과 위로, 사명과 결단이 농축되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바다, 고기잡는 제자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 함께 먹는 아침식사, 그리고 사랑을 묻고 확인하는 대화 가운데 은밀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진실한 용서와 회복, 그리고 사명 주심.

어느새 우리 모두가 그 고귀한 자리에 동참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서 끝내 베드로를 단념치 않으심으로 다른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21장의 주옥 같은 장면들 중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곧 베드로의 앞날을 예고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베드로의 장래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까?(18절)
2.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19절 하반절, 22절 하반절)
3.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묻던 자—요한)를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여쭙었습니까?(21절)
4.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다까?(22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통한 치

료받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기도하는 자로서, 교회 봉사자로서 등 다양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사명들을 바르게, 잘 시작하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서 먼저 해결(치료)되어야 할 문제는 없습니까?

2. 베드로는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앞날에 대해 들은 말씀과 비교해 볼 양으로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가볍게 책망하시면서 요한의 앞날이 어떻게 든 간에 알 바 아니고 베드로 자신에게 주어진 '따르라'는 사명에만 충실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깊은 병폐 중 하나인 경쟁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사역에 대하여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월의식에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뜻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의견들을 나누어 봅시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 구역예배순서 ☀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5 과

인도의 확신

찬송 / 434장

암송할 말씀 / 잠 3:5, 6

목 상

잠언 3:5, 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1.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2.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도의 확신에 대한 나의 점검

3.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 아니오 가끔 모름

2)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끔 모름

3) 당신은 당신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끔 모름

4)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발견합니까?

예 아니오 가끔 모름

5)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신의 일상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예 아니오 가끔 모름

6) 당신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승복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끔

7)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평안을 누리십니까?

예 아니오 가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

4.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7.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활 가운데서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십시오.
8.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9.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0.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1. 하나님의 지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12. 하나님은 내 길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경험이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 용

12. 최근에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경험을 나눌 때, 성공 혹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각자 그 이유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MEMO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